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2)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에서 설명된 개념들을 이용하여 (나)의 밑줄 친 ‘철도 산업’의 특성을 제시하고, (나)와 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을 분석한 후, (다)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선 한 사람이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값을 치른 사람만 이 재화나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한다. 돈을 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적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공공재는 이와 정반대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치안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치안 서비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소비하게 된다. 치안 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치안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치안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이 있는 재화의 생산을 기업이 담당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같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공재와 공공성은 개념이 다르다. 공공재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기업이 생산하여 이윤을 얻을 수 없거나,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이 불확실하여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런데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 정도로 볼 수 있다. 공공성은 결국 특정의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은 채 모든 개인들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두루 이바지하는 속성이며 보편적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공공성은 있으나 공공재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특별한 해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통제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라고 하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에 따라 간접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간접자본이라고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나)

A 씨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집에서 도심의 직장까지 날마다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그에겐 출퇴근이 고역이다. “출퇴근 시간에 열차가 만원이면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건너뛰는 일은 예사예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하는 것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죠. 불량한 객실 위생 상태 탓에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 역사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직장인 B 씨도 민간철도회사의 비효율적이고 불량한 서비스를 성토했다. “열차가 최소 20분에서 1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흔해요. 아무런 사과 안내방송과 시정 노력이 없는 철도회사의 서비스에 어이가 없어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늘 한 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집을 나서요.”

아르헨티나의 철도 민영화는 1989년부터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의 철도 산업은 정부에서 가장 많은 공공 지원금을 받는 만성적인 적자 산업의 하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철도 산업의 민영화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 개선하여 사용자의 서비스도 향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배반당했다. 초기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방대한 규모의 운영에 부담을 느낀 민간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여객 철도의 수익성 감소 탓에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정부가 보조금 지원으로 메워줘야 했다. 재정 지출 감소라는 목표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적자 노선을 대거 폐쇄하면서, 현재 아르헨티나의 철도망은 민영화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화물 수송에서도 철도는 전체 물량의 8%만 감당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 투자를 미루면서 철도 사고도 증가하였다.

(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조직화된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알아보자.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과의 싸움은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동물에게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 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좋은 식품과 동물의 권리를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전문가들은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속에는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이어져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친환경 상품은 생산, 판매, 소비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러한 주장은 저탄소 지향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줄여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거리 장려 정책도 역시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 환경, 지역 경제, 가게 경제, 가족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윤리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도 마땅히 제도 보완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

경제 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정의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 여행 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 여행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공정 무역 제품 선호가 여기에 속한다.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윤리적 소비 운동 단체 대표 C 씨는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어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 무역 제품은 그동안 기업이 일방적으로 누려 왔던 이윤을 원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기에 정의롭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원료, 생산 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판단의 정점에는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